

전남·북 불교단체 사회봉사 빛났다

광주전남불교계 2012 결산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특히 올 한해 많은 흥역을 치렀던 광주전남불교계는 올해의 교훈을 밑거름 삼아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찰과 별도로 불교단체에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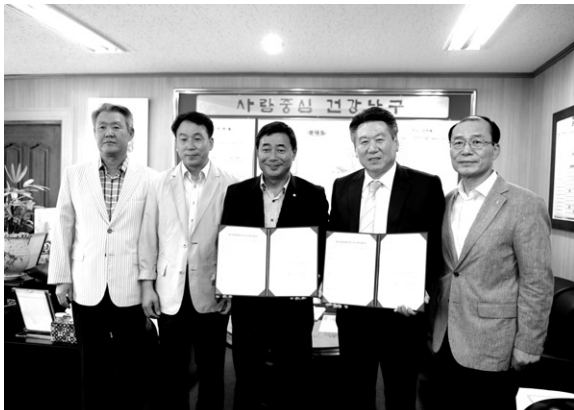
올해 많은 회원사업을 실시한 광주전남불교신도회(회장 지용현)는 부설로 운영하는 '저절로생협'을 통해 지난 7월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광주공공종합센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성과를 내었고, 수미산 산악회(1월), 카일라스 합창단(11월), 잔불가 교육사업, 108배 기도회 모임 등을 잇따라 설립하면서 많은 회원사업을 펼쳐나갔다. 또한 어르신 절터에 대한 불교문화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지역사회에 불교계 역할을 확장시켰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쳐내고 있는 신협단체인 자비신협회(이사장 이화영)는 최근 '행복한 쉼터'를 지난 9월부터 개설했다.

지역 사찰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행복한 쉼터는 생활이 힘든 어르신들 100여 명에게 매일 점심을 대접하는 무료급식소로 지역복지단체와 관공서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기존 차문화아카데미, 장학사업, 재가화엄학원, 외국인센터 외에도 차문화체험학습장을 광주 시내에 열어 차문화를 보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2년 어린이, 청소년 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단체를 꼽으라면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광주전남불교신도회는 지난 7월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광주공공종합센터'를 수탁받았다(좌). 자비신협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자비신협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에게 연탄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법일)를 들 수 있다. 환경연대에서는 올 한 해 10대의 뉴스를 선정했다. △불교환경연대 사무실 확장 이전 △광주시교육청 후원 자파마파 1박 2일 매달 진행 △청소년을 위한 지리산마을캠프 첫 진행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연광 스님 선임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 선정 △광주불교방송에 환경캠페인 연중 진행 △소모임 산에들에 활성화 등을 위한 김정식 단장 선임 △회원증대 사업 지속적 진행 △김정분 회원 회갑기념 후원기금 전달 △지속적인 연계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담보 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2013년 연계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올 한 해의 가장 큰 사업으로 지난 10월 송광사에서 개최된 8차례 행사를 꼽았다.

전국적으로 10번째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역대 행사 중 가장 잘 진행됐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3000여 명의 포교사들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 개최됐다.

광주전남포교사단은 또한 외부 지원금이 없이 자체적 재원을 확보

해 암태도 로만사, 가거도 섬포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목포교도소, 장흥교도소에서 매월 1회씩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군부대(목포 지산부대, 함평 군부대병원)장성 11전차대대 지원활동, 광주소년원(고령정보고등학교) 교화활동, 연불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영균 단장은 "포교의 활성화와 위해서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불교 내에서 포교사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대비 노인(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광주 동구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대례노인복지센터(센터장 무진, 법립사 주지)는 최근 외부의 후원들이 많이 들어든 가운데 자체적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세대 집을 방문해 진행하는 청소봉사과 각 마을 경로당 점심제공 및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생필품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무진 스님은 "최근 호스피스 병동에 불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

지만, 스님들의 지원활동이 절실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대표적 복지관인 송광종합복지관(관장 도제)은 2012년에 많은 지역 밀착사업을 전개해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복지관 등급인 가형으로 선정돼 기존 영예 지원액에 8천만원을 추가됐다.

대표적 지역사업으로 푸드마켓, 장애인센터 및 작업장 개설, 광주 하 나원센터, 북카페 개설은 특히 눈에 띈다.

탈북자녀들 쉼터인 하나원센터는 탈북인 2명을 고용하여, 아직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 탈북인들의 쉼터로 광주시 5천만원, 행정안전부 8천만원의 지원금으로 16평 규모의 아파트 5채를 구입해 운영하고 있다.

푸드마켓은 광주 광산구의 35000명의 수급자중 6000여명을 선정하여 매달 2만원씩 마켓에서 구입해 갈 수 있는 곳이다.

북카페는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누구나 쉽게 책을 빌리고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방과후 지역아동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 신도회 '불교인의 밤' 개최

올 한해 신생활동에 노력해온 익산 지역의 불자들이 격려하고 새해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익산 불교인의 밤' 송년법회가 12월 9일 익산 연리지 웨딩 컨벤션에서 열렸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지광, 송립사 주지)가 후원하고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 해동안 수행과 포교, 복지, 자원봉사 분야 등의 신생활동을 정리하고 계사년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지광 스님, 익산 사암스님들과 김원주 전북도지사, 이한수 익산시장, 김대우 익산시의장 등 내빈과 불자 800여 명이 참석해 풍물패와 범패 공연에 이어 송년법회의 여흥을 즐겼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2012년 한 해 동안 수행·포교·복지·자원봉사 분야 등 신생활동을 정리하고 계사년 익산불교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월주 스님은 범어를 통해 "불자들이 모두 일심 단결해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사회에 회향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광 스님은 "항상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선

행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주 스님은 지역 사회내 봉사활동에 노력한 마한 거사립(회장 오창록)과 대원회(회장 모순영)에 격려금 3백만원씩을 희사하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 개소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를 개원하고 지역 포교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임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범산)은 12월 9일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삼성사에 총무원 청사 개소식과 부처님 삼존불 점안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정 지암 스님은 범어를 통해 "새롭게 조성된 총무

원과 삼존불 조성은 많은 종도들과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종정 지암 스님(임제불교 조계종), 범산 스님, 신흥 스님(대한불교대원종 종정), 범민 스님(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나용수 회장(법무부 소년보호위원회 전국위원회)을 비롯해 300여 명의 종단관



총무원 청사 개소식에는 종정 지암 스님, 총무원장 범산 스님을 비롯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계자와 신도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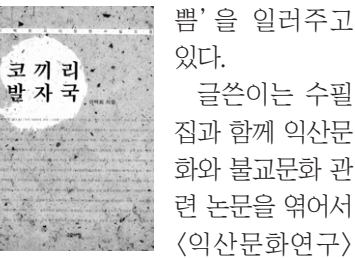
포교열정 담은 수필 '코끼리 발자국'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이며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이택희 씨가, 수필집 '코끼리 발자국(도서출판 고요아침)'을 펴냈다.

늦가을이 수필을 쓴 글쓴이는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불교 통찰력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 독자들에게 공감과 주고 있다.

독서와 여행, 답사 등을 통해 느낀 진솔한 이야기들을 '살[人生], 깨달음, 여행, 옛것' 등 네 마당 86편의 수필로 펼쳐 보이고 있다.

문장이 매우 짧고 쉬우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공감과 깨달음을 준다. 이 책은 '읽는 재미와 깨달음을 주면서도 새로운 것을 아는 기



쁨'을 일러주고 있다. 글쓴이는 수필 집과 함께 익산문화와 불교문화 관련 논문을 엮어서 <익산문화연구>도 함께 펴냈다. '미륵사지 사리봉 안기에 나타난 불교사상', '간다라 미술이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 9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자원봉사자 대회 열어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연)는 12월 12일 전북불교회관 지하 식당에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북불교회관 무료 경로식당의 급식 봉사와 도시락 배달 봉사에 동참한 30여개 봉사단체와 후원자 등 200여명이 동참한 이날 자원봉사자 대회는 한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에 동참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무료경로

송광사 스님들 김장봉사 회향

순천아동센터 500포기 전달

승보종찰 송광사(주지 무상)는 12월 12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순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원들에게 나눔의 김치 500포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김치는 지난 12월 2-4일 3일간 송광사에서 '스님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김장봉사'에서 마련된 것.

행사에는 무상 스님, 허홍량 회장(순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을 비롯해 아동센터장 40여 명이 참여했다.

송광사는 지난 여름 지역아동센터에 나눔의 쌀을 지원하고, 이번 겨울에는 김치를 후원했다.

특히 아동센터장들과의 환담을 통해 지난 여름 나눔의 쌀 전달식에서 주지 무상 스님이 약속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송광사 방문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매월 1주씩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말 체험프로그램을 요청하여 방문할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악산 청련암 중창불사 회향

김제 금산사 산내암자인 청련암이 3년여에 걸친 복원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사진>

12월 8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관법 스님, 보승 스님, 주정기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불자들과 포교사들이 참석했다.

청련암 극락전에서 열린 중창불사 회향법회에서 원행 스님은 범어를 통해 "오랜 수행터를 복원하게 된 것은 오로지 원력과 신심으로 가능했다"고 치하했다.

청련암은 한때 청사굴로 불렸으며 1598년 정유재란과 한국전쟁 중 소실된 것을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



불기2554년부터 삼삼각 해체 보수, 요사채와 극락전을 완공하고 이날 3년여에 걸친 중창불사를 회향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비용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비용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도움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